

# ‘바로북’ 서비스 확대 운영

### 익산시, 새로운 명칭 탈바꿈... 도서관 홈페이지서 신청 가까운 서점서 빌려

익산시가 동네 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바로 무료로 빌려 볼 수 있는 바로북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바로북은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는 경우 협약된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려볼 수 있는 ‘동네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의 새 이름이다.

지난해 6월 서비스 시작 이후 12월까지 총 1,878명이 2,574권의 책을 대출해 시민들이 일 평균 15권 도서를 빌려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1인당 대출권수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서비스 명칭을 바로북으로 변경했다.

익산시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월 최대 3권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한 도

서는 14일 이내에 해당 서점으로 반납하면 된다. 협약서점은 대한서림 영등점·중앙점·동아서점·모현점·영등점·원서점·호남문고로 총 6개소이다.

통상적으로 인기 있는 신간도서를 도서관에서 대출하려면 최소 2~3주 이상을 기다려야 하지만 바로북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점에서 바로 빌려보거나 서점에 책이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를 높였다는 평이다.

바로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하고 가까운 협약서점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서점으로부터 도서가 준비되었다는 알림메시지를 수신하면 해당 서점에 방문해 신청한 도서를 빌려볼 수 있다.

도서관에서 미리 구비하지 못한 책을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신청해서 얻을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장서 구성이 된다는 점 또한 바로북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협약서점에서는 반납된 도서를 도서관으로 납품할 수 있어 이윤 창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책을 대출하기 위해 서점을 방문했다가 다른 책을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부가적인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조운진 대한서림 영등점 대표는 “온라인 대형 서점에 밀려 그동안 서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시에서 지역서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익산지사 직원 70명을 대표해 신현달 익산지사장과 송중형 고객지원부장은 지난 17일 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 고향사랑 · 지역사랑 ‘듬뿍’

### 농어촌공 직원 70명, 익산시에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동참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릴레이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고향 사랑 마음을 전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익산지사 직원 70명을 대표해 신현달 익산지사장과 송중형 고객지원부장은 지난 17일 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금은 시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생산기반 현대화와 생산성 증대로 영농편의 증진과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등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나눔경영 실천을 위해 해마다 사회 복지시설, 소외계층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 연

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신현달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은 “직원들의 작은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에 힘을 보태고자 기부체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기부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일정한 담세율을 받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 “경제 · 산업 · 일자리분야 개선을”

### 군산시의회 경건위 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중대)가 지난 16일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발전혁신국 지역경제협력과, 산업혁신과,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경제 · 산업 · 일자리 분야별 올해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지난 16일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발전혁신국 지역경제협력과, 산업혁신과,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경제 · 산업 · 일자리 분야별 올해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인 배달의 명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이벤트 등 홍보 노력에 비해 소비자 주문 건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가맹점의 시스템 준비가 마무리 잘 되어 있다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거대 배달업 체널보다 배달의 명수를 쓰고 싶도록 각종 유인책이나 편의성 개선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리고 박경태 의원은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와 관련해 기존 담배소매인이 실질적인 폐업 이후에도 폐업을 미신고한 채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 규정 등을 이용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서의 불법적인 관리주장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업 담배소매인에 대한 군산시의 직권취소 등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중견·중소기업 등 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청년층의 구직 지원을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추진을 당부했다.

그리고 나중대 위원장과 지해춘 의원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시설개선조사사업이 LED 조명 공사 등 소수의 시공업체의 편중 참여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므로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확인·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새만금 동서도로 · 신항만 방파제, 군산 관할”

### 군산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1차 심의회서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수사를 위한 군산시의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신청해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결정에 대한 1차 심의회가 열렸다.

이번 심의에서 김임준 군산시장의 중분위에 직접참석해 시민과 시의 입장 등 시는 관할권 확보를 위한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해상이자 군산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서 사이에 위치하고 군산시 섬과 연결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임을 강조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거 새만금의 산업축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공단 동서도로, 신항만을 연계하고 산업기능

을 집적화함에 따라 산업발전이 시너지효과를 내 지자체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피력했다.

군산시는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대형방파제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새만금지역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인접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한 군산시 주민들의 상실감을 고려할 때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군산시 관할임을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마땅히 군산시 관할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중분위 위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지 바란다”며, “중분위 심의가 시작된 만큼 사활을 걸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군산시의회 상임위 원안 가결

### 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1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조성 관련 포상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과 녹색건축물의 인증 등에 대한 지원,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포상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경봉 의원은 “수원시 김포시 등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산시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기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대식 익산 부시장, 연이은 소통 행정 ‘눈길’

전대식 익산시 부시장이 연이은 현장 행정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챙기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 부시장은 17일 여산면에 위치한 이병기 선생 생가와 가람 문화관을 방문하여 문화재 현장 답사의 시간을 가졌다.

국문학자이자 시조작가로서 고전 연구에 평생을 바친 이병기 선생의 생가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는 매년 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재 보존관리에 힘쓰고 있다.

보수장비 사업이 함께 진행 중인 소재양 신도비와 소자파 묘비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자파 묘비는 조선 중종 21년(1526)에 건립된 묘비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이다.

문화재 현장을 둘러본 전 부시장은 귀중한 익산인 문화재뿐만 주변 환경 정비 안내관 관리 등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민생 현장 행정도 앞장서고 있다.

전 부시장은 지난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중앙시장 청년몰과 중매서 커뮤니티 라운지를 찾아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어 민경강 문화관을 찾아 문화관 내부와 민경강변 부지를 직접 둘러보며 민경강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친환경 개발의 균형을 잡기 위해 유관 부서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요청했다.

전 부시장은 “수시로 현지 출장을 통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생 현장 행정도 앞장서고 있다.

전 부시장은 “수시로 현지 출장을 통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추진

군산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에 맞춰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023년 수소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수량은 일반 90대, 우선순위에(취약층 다자녀 등) 10대 등 총 100대, 1대당 3,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부가적으로 공기 정화 효과까지 있는 친환경 차량이다.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구 매지연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군산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수소차 출고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농업용 면세유 지원 능가 경영 안정화 도모

군산시는 지난 17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등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하반기 9~12월까지 4개월분 면세유 기준단가 리터당 경우 308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난방) 171원, LPG(차량) 91원, 부생연료유(호 207원, 부생연료유(호 2) 97원) 기준으로 지원한다.

단, 시설원에 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대상가능는 10~12월 3개월분에 대해 도 자체 사업 지원 단가 기준으로 차액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해당되며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주하는 읍면동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고부가 가치에 기여하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산시의 안정적인 식량 생산기반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여름철 재난대비 유관기관 협력 강화

익산시가 여름철 재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17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15개 유관기관·민간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민·관·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선제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과 인명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재해 취약 지역·시설의 점검·정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시는 철저한 사전 대비를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15개 유관기관·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김영란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현재 군산에서 지급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이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인상 필요성과 후국보훈정신을 되새기



준 적용 △수당 금액을 각 대상별 4·8·9만원에서 10만원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중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